

‘사서커뮤니티’를 통해 본 대학도서관의 과제

University Library Issues Inquired of the ‘Librarian's Community’

김 용 근(Yong-Gun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4. 상호대차업무 |
| II. 웹사이트를 통한 사서간의 커뮤니케이션 | 5. 전산업무 |
| III. ‘사서커뮤니티’의 영역별 메시지 분석 | 6. ‘사서커뮤니티’의 정체성 |
| 1. 수서업무 | IV. 사서들이 보는 대학도서관의 과제 |
| 2. 정리업무 | V. 결 론 |
| 3. 참고봉사업무 |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업무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을 ‘사서커뮤니티’를 통하여 질의하고 다른 도서관 사서들로부터 해답을 얻고 있는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사서커뮤니티’에서 구분하고 있는 업무방식인 수서업무, 정리업무, 참고봉사업무, 전산업무, 상호대차업무 등 각 부문에서 어떤 사항들에 많은 사서들이 관심을 가지거나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알아본다. 현장 사서들이 지적하는 과제들은 제도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도서관에서 풀어야 될 것인지도 알아본다.

주제어: 대학도서관, 사서, 커뮤니케이션, 웹기반, 사서커뮤니티

ABSTRACT

Information inquiries asked of the ‘Librarian’s Community’ will reveal the real problems and interests of the university libraries. This paper intends to find out in what areas the university libraries have most problems and interests and how serious they are by analyzing the contents of inquires. To identify the issues, the works in the university libraries including acquisition, cataloging, reference services, library automation and interlibrary loan were analyzed. This research also tries to identify if the issues need to be handled by the legal or solved by individual libraries.

Key Words: University Library, Librarian, Communication, Web Based

*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ygkim@cu.ac.kr)

• 접수일: 2007년 11월 23일 • 최종심사일: 2007년 11월 26일 • 최종심사일: 2007년 12월 24일

I. 서론

사서들이 업무수행 중에 생기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도서관 사서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통신기술이 지금과 같이 발달되기 전에는 다른 도서관 사서들과의 업무 연락은 전화로 하거나 공식적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시밀리로 하는 수가 많았다. 물론 현재도 이런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인터넷의 활용이 일반화되고는 사서들의 의견과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가 개설되고 있다. '도서관메일링리스트'를 비롯하여 열린도서관 동호회(올리브), 사서e마을, 학교도서관 문화운동 네트워크(학도넷), LibNews, 깨비깨비, 리스트피아넷, 도쟁이, '사서커뮤니티' 등이 현재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다 카페나 블로그, 개인홈페이지까지 보태면 사서들이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은 다양하다. '한국문헌정보학엘로우페이지'에는 커뮤니티, 블로그, 자료실 등에 포함된 웹사이트까지 올려두고 있다. 각 사이트들은 조금씩 다른 특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으나, 방문자의 조회수가 기록되는 사이트만을 살펴보면 이용자들의 수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대화를 위한 공간은 마련되어 있으나 공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다양한 웹사이트 중에서 특히 주목을 하는 것은 사서들이 업무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하여 서로 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또는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거나, 도서관계의 모임이나 소식을 전할 목적으로 메시지를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이들 사이트에는 사서들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거나 사서로서의 정체성에 관련된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인쇄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기 보다는 훨씬 간편한 절차와 방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사서들의 생각들이 진솔하게 표현되고 있다. 또한 어떤 생각에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견해가 있으면 댓글을 올리기도 하는 것이다. 인쇄매체가 가진 일방적인 의사 표현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어떤 견해에 대하여 논의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도서관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웹커뮤니티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서관메일링리스트'는 올 해로 10년이 되고 있다.¹⁾ 현장 사서로서 외부 동료와의 정보교류 및 업무연락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동기로 만들어졌으며, 업무상 필요한 정보와 자료, 경험을 상호 신속하게 교환하고 도서관인 간의 유대감 강화 및 친목도모를 그 목적으로 출발하였다고 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다. 참고유형의 질의에 응답하고, 토의를 통하여 도서관 발전을 돕고 정보와 자원의 공유와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통하여 사서의 권익신장에 일익을 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도서관메일링리스트'에 올려진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정보교환, 참고봉사, 수서, 정리, 열람 등 도서관 업무수행에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전자도서관, 사서의 명칭, 사서의 전문성 등에

1) '도서관메일링리스트'에 올려진 자료를 원시 데이터로 하여 연구된 논문은 4편이라고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다. 각각의 논문들은 도서관메일링리스트 소개에서 참고할 수 있다.

관련된 주제를 가상공간에서 토론화로 이끌어내고, 사서의 공동체 의식 및 결속강화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이다.²⁾

한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서커뮤니티’는 2002년에 오픈하여 2007년 10월 현재 2128명의 회원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자유게시판, 익명게시판, 상호대차, 수서업무, 전산업무, 정리업무, 참고봉사 및 열람업무 등 업무영역별로 게시판을 나누어 운영하며 각 업무부문별 운영위원을 한사람씩 두고 있다. 2007년 10월 30일까지 게재된 메시지 수는 자유게시판 5569 건, 익명게시판 174건, 상호대차 859건, 수서업무 581건, 전산업무 578건, 정리업무 518건, 참고업무 및 열람업무 710건 이다. ‘사서커뮤니티’에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어떤 제한요소는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모체 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KERIS라 함) 업무의 특성상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많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또한 활발하게 커뮤니티에 메시지를 올리고 토의하고 있다. 각 중 게시판에 올라오는 메시지도 모두 대학도서관의 여러 업무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이며, 댓글을 올리는 사람들도 모두 대학도서관 사서들이다. 따라서 ‘사서커뮤니티’에 제시되는 메시지를 분석하면 현재 대학도서관들의 각 업무영역별 당면과제는 무엇이며,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가지고 있는 도서관과 사서직에 대한 견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서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있는 사서들이 모두가 대학도서관 사서만은 아니라는 점과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댓글을 쓰는 사서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는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전체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의견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도서관의 일반적인 형편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대학도서관 사서들에게 잘 알려지고 있는 웹사이트인 ‘사서커뮤니티’에 올려지고 있는 메시지와 댓글을 분석하여 사서들의 대학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서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것이다.

II. 웹사이트를 통한 사서간의 커뮤니케이션

도서관 업무수행 중에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에 대한 분석은 오래 전부터 문헌정보학 연구의 주요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사서와 이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주로 참고면담 과정에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도서관의 모든 업무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도서관전산화가 이루어진 후에는 이용자에 대한 정보봉사가 간접봉사와 직접봉사간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연구주제로 이용자와 사서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다루고 있다. 특히 웹기반으로 한

2) 김지홍, “사서의 메일링리스트를 통한 정보이용 분석에 관한 소고,” 도서관문화, 제39권, 제9호(1998. 9), pp.35-48.

정보서비스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본 연구와 일정한 관련이 있는 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자 정보서비스 환경에서의 이용자와 정보사서간의 커뮤니케이션”,³⁾ “대학도서관 전자참고서비스 운영”,⁴⁾ “대학도서관 웹기반 전자참고정보서비스”,⁵⁾ “대학도서관 온라인 참고봉사⁶⁾” 등과 같은 주제들이다. 이용자들의 질의와 이에 대하여 응답하는 형식이 웹기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용자와 사서가 대면하여 질의하고 응답하는 형식과는 많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밝혀내고 있는 연구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서들이 이용자들의 질의에 신속하고 적합한 응답을 하기 위하여 또는 그들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의 사서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는 많지 않은 편이다. 인터넷 사용이 일반화되기 전에는 업무수행 중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도서관 사서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전화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공식적인 업무인 경우는 문서로 우편을 이용하였다. 조직체 밖의 사서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기 어려운 환경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사서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로는 “메일링리스트를 통한 전문도서관 사서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가 있다.⁷⁾ 이 연구에서는 메일링리스트 이용시 전문도서관 사서들이 업무적 측면, 자아 발전적 측면, 심리적 측면에서 얻는 인식도를 조사하고 있다. 메일링리스트 이용정도가 더 많은 적극적 이용자 집단의 인식도가 소극적 이용자 집단보다 각 측면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메일링리스트는 전문도서관 사서들에게 유용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현장 사서들은 그들의 업무내용을 논문 형식으로 발표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사서들이 도서관에서 업무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그 유용성이 입증되고 있는 웹사

- 3) 다음의 4편의 논문들은 사서와 정보 이용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고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어 논문의 내용을 각주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이숙희, “전자정보 서비스 환경에서의 이용자-정보사서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7권, 제1호(2003. 3), pp.152-170.
- 4) 이재윤, “전자도서관 환경에서 이용자-사서간 협력을 위한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15권, 제1호(1998. 3) pp.109-127.
- 5) 유재옥, “대학도서관의 웹기반 전자참고정보 서비스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17권, 제1호(2000. 3), pp.171-186.
- 6) 정재영, “대학도서관의 효과적인 온라인 참고봉사에 관한 연구,” 도서관, 제56권, 제2호(2001. 6), pp.24-49.
- 7) 유정인, 메일링리스트를 통한 전문도서관 사서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2), pp.62-64. 도서관 조직내의 사서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논문은 두 편이 있다. 김인경, 대학도서관 사서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89), 유재란, 도서관조직내의 사서간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전주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98), 본 연구와 약간의 관련성이 있는 외국의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Robinson, Kara L., Diane Kovacs, “LibRef-L: Sharing Reference Expertise over the Academic Networks,” *Wilson Library Bulletin*, Vol.67(1993), pp.47-50.; Hicks, Alison, Lucy A. Tedd, “Networked information Resources for Medical Librarians: an overview and some case studies in the UK,”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Vol.27, No.4(1995), pp.199-208.; Xu, Hong, “Global Access and its Implication: The Use of Mailing Lists by Systems Librarians,” *Proceedings of the ASIS Annual Meeting*, Vol.35(1998), pp.510-515.

이트를 기반으로 하는 사서간의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도서관분야 웹사이트에 올려진 메시지를 살펴보면 “학교도서관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도서관 메일링리스트 글 번호 18082, 조회수235회, 댓글수 6개)라는 글에 대한 사서들의 반응이 높다. “사서는 전문직인가?”(도서관 메일링리스트 글 번호 18003, 조회수 636회, 댓글수 14개) 이 글은 최근에 도메리에 올려진 메시지 중에서 조회수가 가장 많은 글이다. 한 댓글에서는 조회수가 많은 이유를 말하고 있다. ‘진부한 주제이지만 지금까지 여러 글에서 논의한 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사서는 전문직인가?”라고 묻고 있다’는 설명이다. “당신의 자격증은 어디에 있습니까?”(도서관 메일링리스트 글 번호 17936, 조회수351회, 댓글수 1개)는 사서 자격증을 도서관 어디에 걸어두고 도서관봉사를 하지는 제안이다. “도서관은 독서실이 아닙니다.”(도서관 메일링리스트 글 번호 17718, 조회수 324회, 댓글수 6개)도 많이 논의되었던 주제이지만 다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보아야할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도서관 도서선정시 도움 되시라구요.”(도서관 메일링리스트 글 번호 17530, 조회수 579, 댓글수 2개)는 교보문고에 근무하는 한 사서가 도서선정에 필요한 도구를 안내하고 있다. “사서교육원은 계속 존재하나요.”(사서e마을, 조회수 948회, 댓글수 8개, 2007, 8,19)에서는 취업의 어려움을 논의하면서 수업연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위에서 최근 웹사이트에서 도서관 현장과 문헌정보학 강단의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과제들의 대강을 살펴보았다. 오래 전부터 논의되고 있는 주제일지라도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하고 있으면 그러한 메시지는 많은 사서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웹사이트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논의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에 따라 사서들의 관심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서커뮤니티’에 올려진 메시지를 통하여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가지고 있는 대학도서관 업무에 대한 이해와 문제를 알아보려고 한다.⁸⁾ ‘사서커뮤니티’는 사서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여 구축되고 그들이 환경과 주변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내용들을 적어내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 먼저 의제를 제시하면 다른 동료사서들이 댓글을 달고, 또 다른 사서는 의제와 먼저 올려진 댓글을 보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다.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해결책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다. 소수의 사서들만이 참여하고, 메시지에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분석하는 데이터의 대표성의 문제, 신뢰성, 타당성의 문제는 있을 것이다.⁹⁾

8)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원시 데이터를 ‘사서커뮤니티’에서만 수집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도서관메일링리스트’는 이미 한 차례 본 연구자가 연구한 논문이 있고 또한 여기에는 대학도서관의 사서들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보다 도서관분야 전체를 관찰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도서관메일링리스트’에는 댓글의 숫자가 많지 않아 본 연구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는 데이터이다. ‘사서e마을’은 사서직 취업 커뮤니티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커뮤니티이다. 가끔 도서관계에서 논의가 필요한 메시지가 올려지는 경우도 있다. ‘LibNews’는 창간 의미, 목표, 운영방침에서는 도서관계에 대두되는 사안 및 위기에 대하여 적합한 의제수립 및 대안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재 그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여 본 연구에 이용할 원시 데이터의 숫자가 많지 않다. 여타의 커뮤니티는 각각 어떤 특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이용될 원시 데이터의 수집이 어려운 실정이다.

9) 이에 대하여 전문가의 견해를 참고한다. “네이버의 경우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댓글이다. 하루에 댓글

Ⅲ. ‘사서커뮤니티’의 영역별 메시지 분석

‘사서커뮤니티’에는 자유게시판, 익명게시판, 상호대차, 수서업무, 전산업무, 정리업무, 참고봉사 및 대출업무 등의 게시판을 개설해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게시판에 올려진 글 중에서 조회수가 100회 이상이거나 댓글이 5개 이상 달려진 메시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조회수가 100회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각 업무영역에서 의미 있는 관찰이나 지적이라고 판단되면 그러한 메시지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조회수가 많거나 댓글이 많이 달려진 메시지는 사서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분석은 전체 메시지를 대상으로 어떤 유형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올려지고 있는지를 고찰하지 않는다. 이른바 정량적 분석은 하지 않고 정성적 분석을 하는 것이다.¹⁰⁾ 따라서 데이터의 분석을 위하여 표를 쓰거나 그림으로 나타내지 않고, 개별 사서들이 표현하는 실제의 텍스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양적 기술이 현상의 빈도, 발생, 분포, 양을 다루는데 반하여 질적 방법에 따른 기술은 어떤 현상의 의미, 변화, 경험을 탐구하는 것이다.¹¹⁾ 소수이기는 하지만 대학도서관의 주요 과제를 풀어나가려는 의지를 가진 사서들의 고민은 무엇이며 또한 그것들을 풀어나가는 방식은 어떠한지를 알아내기 위한 것이다. 아직 개별도서관에서 정교하게 만들어진 매뉴얼도 없고 전형으로 삼을 수 있는 도서관도 없는 우리 환경에서 의욕을 가진 사서들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대학도서관의 현재를 진단하는데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수서 업무

대학도서관 수서업무가 크게 달라지고 있는 현상은 정보를 담고 있는 매체의 변화에 따라 도서관에서 자료를 입수하는 방식도 바뀌지고 있는 것이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생산되는 매체의 형태와 전달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학도서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술잡지의 구독방식이 인쇄자료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크게는 디지털시대에서의 대학도서관의 장서개발에서 작게는 개별 매체의 선택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는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을 쓰는 사람은 5만명이고 하루 댓글 15만 가지가 올라온다. 150만명이 댓글을 읽는다. 하루 네이버뉴스 이용자가 500만명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중 1%가 쓰는 댓글을 150만명이 보는 구조이다. 사회적 참여의지가 강한 1%가 사회적 의제설정을 주도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만약 150만명이 1%가 던지는 메시지를 가려줄 수 있다면.” 홍은택, <세상읽기>웹2.0시대의 의제설정, 한겨레신문 2007.10.15.

- 10) 한국 도서관의 사정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맞는 방법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논문은 다수가 있다. 다음의 논문에서는 연구주제, 연구방법, 논문의 표현방법에 이르기까지 우리식으로 하여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김영기, “한국 문헌정보학의 현실 적합성과 실천성,”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4권, 제2호(2000. 6), pp.191-209.
- 11) 하정훈 등, “의료 부문에 관한 신문 독자투고의 내용 분석,” 가정의학회지, 제20권, 제3호(1999. 3), pp.221-231.

“전자저널 선정 방침 있으신가요?”¹²⁾ ‘전자저널 선정이 어떤 기준에 의하여 선정되었다기 보다 일반적이며 대중적인 것 위주로 예산에 맞추어 선정되었다’고 질의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응답은 많지 않다. 한 댓글은 인쇄저널을 구독할 때와 동일한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교수 개인이나 학과 단위로 필요한 저널 리스트를 받아서 목록을 취합하고 이에 합당한 전자저널 패키지를 선정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또 하나의 댓글은 아직까지 대학도서관에서 전자저널 선정방침이 만들어진 것은 없다고 한다.

전자저널 구독은 개별 저널에 대한 구독신청이라기 보다는 패키지에 포함된 전자저널을 컨소시움을 통하여 구독계약을 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개별 대학도서관에서의 전자저널 구독에 대한 응답이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¹³⁾

“e-book 구입은 얼마나 하세요?”¹⁴⁾ ‘e-book 구입에 예산은 얼마나 편성하는지, e-book구입은 언제하는지 그리고 자료선정은 어떻게 하는지’를 문의하고 있다. 한 댓글에서는 국내 e-book을 구입하고 수험서도 e-book을 구입하며, 구입예산이 4000만원이고 오디오북도 구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해당 도서관의 전체 예산이 얼마이며 그 중에서 e-book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비도서자료의 수집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대학의 국내간행물 대행업체를 정리하고 싶다”¹⁵⁾는 질문이다. ‘각 대학에서 현재 대행을 하고 있는 국내 학술지 납품업체를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한다. 이 문제는 많은 대학도서관 수서담당 사서들이 겪는 어려움이다. 질문자는 국내 간행물 대행사 몇 곳과 계약하여 납품을 받고 있지만 특히 학회지 구독이 번거롭다는 것이다. 학회 주소가 자주 바뀌고 업무연락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런 질의에 대해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회정보를 이용하면 회장교 변경과 거의 동시에 관련 정보가 반영된다는 댓글이 있다. 이 댓글에 대하여 많은 사서들이 환영을 하고 있다.

“기증자료 등록기준 또는 지침이 있나요?”¹⁶⁾ ‘외부기관에서 발간되어 기증되는 자료는 99%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구성원이 기증하는 자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새 책도 아니고 발행년도 또한 많이 흘렀고, 이런 책들에 대한 등록기준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하고 있다. 한 댓글에서는 자관 수증자료내규를 ‘사서커뮤니티’자료실에 올려두었다는 대답을 한다. 수증내규 3조와 4조를 참고하라는 부탁도 하고 있다. 현재 많은 대학도서관에서 장서 100만권 확보를 목적으로 교내외에 자료기증운동을 펼치고 있다. 해당 대학에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2) “전자저널 선정방침 있으신가요,” KERIS사서커뮤니티의 수서업무 게시판 글 번호 594. <http://risscom.riss4u.net/> (다음부터는 메시지가 게재된 주소의 표기를 생략한다. 본 학회지 논문 투고규정에는 전자자료의 인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원시 데이터는 해당 업무영역별 게시판의 글 번호로 인용의 식별이 가능하다.)

13) 전자저널 구독방식에 관련된 연구논문은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회지마다 많이 수록되어 있어 내용의 설명은 하지 않는다.

14) “e-book 구입은 얼마나 하세요,” 수서업무 게시판 글 번호 596.

15) “각 대학의 국내간행물 대행업체를 정리하고 싶다,” 수서업무 게시판 글 번호 570.

16) “기증자료 등록기준 또는 지침이 있나요,” 수서업무 게시판 글 번호 508.

“연속간행물 수서 관련”¹⁷⁾ 전자저널은 제외하고 인쇄저널을 중심으로 도움을 부탁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한 댓글에서는 ‘학술지는 학과장 명의로 신청을 받고, 학과당 제한된 예산내에서 구독이 가능하다. 예산이 초과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이다. 전자저널로 구독하는 학술지에 대해서는 인쇄본 구독은 중지하고 있다는 대답이다. 이 사안을 전국대학도서관대회¹⁸⁾에서 토의주제로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댓글도 있다.

“도서선정위원이 직접 선정에 참여하는 대학 있나요?”¹⁹⁾ ‘신간도서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수가 월 2회 신간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입장에서 부담은 덜 수도 있지만 사서의 위치가 자칫 단순 행정업무로 전락되는건 아닐까 조심스런 걱정도 든다’는 말도 하고 있다. 여러 댓글에서는 교수의 참여는 해당 전공분야에 대해서만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교수들의 전적인 선정 결정은 위협하고 균형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다. 그런데 현실은 옳지 않은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 한 댓글에서는 학생, 직원, 교수들의 신청을 받아 담당사서가 정리하여 과장, 관장의 결재를 받으며 선정위원의 참여는 없다고 한다. 학생과 직원의 신청은 담당사서가 자세하게 검토하여 정리하고 교수들은 학과별 예산을 배정해 두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필요한 자료의 신청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질의자의 도서관에서는 교수진으로 도서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들이 신간자료 선정을 한다는 것이다. 댓글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교수의 자료선정은 전공분야에는 약간 도움이 되지만 전공과 무관한 다른 학문분야의 자료선정에 직접 개입한다는 것은 장서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우려되는 현상이다.

“수서업무에서 궁금한 점”²⁰⁾이라고 질의하면서 여러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신속한 도서구입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인터넷 서점의 활용이 가능한가, 신간 베스트셀러는 무조건 구입하는가, 단행본 구입비와 전자자료 구입비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장서개발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장서개발은 수서부문인가 열람부문인가, 각 대학의 수서업무는 선정까지 포함하는가’ 등 수서업무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질의하면서 이런 사항들을 토론 주제로 하여도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많은 댓글이 올려지고 있다. 장서개발이라는 개념이 현장에서 적용되려면 복잡한 고려사항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위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은 없다. 한 도서관은 희망도서신청분만 인터넷 서점을 이용하다가 요즘은 많은 부분을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다고 한다. 희망도서는 학교명의로 된 카드로 결제한다. 마일리지로 훼손된 도서를 사는데 사용한다. 인

17) “연속간행물 수서 관련,” 수서업무 게시판 글 번호 564.

18) 전국 대학도서관대회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관하는 세미나로 매년 상반기에 열리며, 이 모임에서 업무분야별 실무자 토의가 있다.

19) “도서선정위원이 직접 선정에 참여하는 대학 있나요,” 수서업무 게시판 글 번호 557. 사서중심의 장서개발에 관한 연구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김정근, “대학도서관에 있어서 사서중심의 장서개발은 가능한가? - 부산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학논집, 제20집(1993), pp.61-105.

20) “수서업무에서 궁금한 점,” 수서업무 게시판 글 번호 553.

터넷 서점과 할인율을 정해서 일괄 정산한다. 특정 주제분야를 교수들과 상의하여 정해두고 매 분기마다 한 주제씩 아마존 목록을 수집해서 없는 도서를 모두 구입하여 소급수집이 부분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다. 질의자의 요청과 같이 이 문제는 전국대학도서관대회와 분과별 토론주제로 삼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많다.

“국외서 구매방법에 대해”²¹⁾ 국외서의 경우 연 2-3회 정도 학과 추천을 받아서 입찰로 구매하고 있는데 너무 늦게 책이 입수되어 구매 방법을 개선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질문이다. 한 도서관은 국외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구입한다. 5만원대에서부터 몇 백만원까지 신청할 때도 있다. 교수님이 지정해주는 업체가 있으면 그 쪽으로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여러 댓글을 요약해 본다. 자료입수는 보통 3-4주 정도 소요된다. 외서 수입업체는 특정 주제 전문대행업체가 많아서 주제별로 나누어 업체를 선정하면 어떻겠느냐는 응답이 있다. 1년에 1-2회 학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국외서 구입을 한다. 학기초에 신청을 받고 주문을 하면 학기가 거의 끝나갈 때쯤 도서관이 입수되어 교수님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열심히 수서를 해도 행정적인 서류처리나 대행사측의 국외 출판사 주문 문제로 2달이 소요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도서관 도서구입 동향”²²⁾이라는 어느 블로그의 글을 수서업무 게시판에 옮겨두고 있다. 조회수가 많은 글로서 주요 내용만 요약하여 옮긴다. 현재는 주로 연간단가, 할인을 입찰계약으로 신간 도서를 구입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구매방식인 일반경쟁입찰(총액할인율)로는 납품 신속성, 미납품 발생, 군소업체의 MARC DB문제, 반복되는 서류의 복잡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즉 할인율이 적은 양질의 도서 구입이 어렵고 신간도서의 입수시기가 지체되고 입수율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국내 도서뿐만 아니라 외국 도서까지도 수의 계약에 의한 구입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하면 양질의 도서를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할인율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야 된다는 권고도 하고 있다.

“희망도서 질문-속도에 대하여”²³⁾ ‘희망도서 신청을 하면 도서관에 입수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를 질의하고 있다. 이용자가 이용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며, 어디를 통하여 구입하는지를 묻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 응답이 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본다. 긴급한 희망도서와 해외 양서는 교보와 yes24로 보내고 국내 희망도서는 빠르면 2-3일 걸린다. 대부분 1주일 걸린다. 외국서는 5개 업체를 정해두고 이들을 통하여 88%정도 들여온다. 국내에 가지고 있는 양서는 1주일 이내에 오고, 해외 양서는 한달 정도 걸린다. 비용은 정가의 105% 정도 이다. 비도서는 대행사인 “한국산학경영”을 통하면 일주일 정도 걸린다. 국내서는 빠르면 이틀 안에도 제공이 된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

21) “국외서 구매방법에 대해,” 수서업무 게시판 글 번호 539.

22) “도서관 도서구입 동향,” 수서업무 게시판 글 번호 513.

23) “희망도서 질문-속도에 대하여,” 수서업무 게시판 글 번호 495.

“주제서비스 시대의 장서관발”²⁴⁾에 대한 질문이다. ‘요즘 주제실을 운영하는 도서관에서는 담당실에서 해당 주제분야의 장서를 개발하는지’를 질의하고 있다. ‘전통적인 수서과를 운영하는 대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장서관발을 하는지’도 함께 묻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한 댓글은 주제별 장서관발과 관련하여 두 해에 걸쳐 예산신청서 계획안을 만들었던 경험을 적고 있다. 각 실 담당자가 관련 논문을 조사하여 가장 합당한 수식을 찾아 공통인자, 학생수, 강의과목수, 주제별 소장자료수 등을 가지고 각 실마다 과부족한 주제장서의 현황, 적절한 주제구성을 위한 예산액 등을 보고서로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러 도서관에서 그 보고서를 요청하는 댓글을 올리고 있다.

수서업무 관련 사례집²⁵⁾에 포함시킬 내용을 살펴본다. 인터넷 서점을 통한 단행본 구매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면서 이전에 게시판에 올려진 글을 소개하고 있다. 단행본 단권 구매를 하고 있는 사례를 모으고 있다. 사례에 수록될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해 본다. 모든 자료를 단권으로 구입하고 지정도서나 추천도서는 3복본으로 수집한다. 단권은 많은 도서를 구입할 수 있고, 서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어떤 도서가 이용이 많이 되면 1권 추가 구매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서, 정리담당 사서의 업무가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과년호 교양 연속간행물 처리에 대한 사례도 모으고 있다. 보존서고에 별도 관리,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폐기처분, 제본 배열, 폐기전에 자유열람실 휴게실 서가에 비치해 두고 있다는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학생 희망도서 한도에 대한 사례 모음도 있다. 1달에 1인당 10종, 1학기당 1인 5종, 제한이 없다, 1년 1인 10종 등 다양한 사례가 댓글로 올려지고 있다.

2. 정리업무

대학도서관에서의 정리업무는 수서업무나 참고봉사 업무와 같이 도서관에 따라 업무 방식에 차이가 나지 않으며 어떤 표준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집된 자료를 일정한 형식에 따라 목록 작업을 하는 것이므로 어떤 규칙에서 제시하는 형식을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정리업무에 대한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질의는 자주 입수되지 않는 자료의 정리방법에 대한 것들이 많다.

“e-book 정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²⁶⁾ ‘정리방법은 도서와 같은 목록기술규칙을 사용하여 MARC을 작성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메타편집기를 사용하시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다. 댓글에서는 대학에 따라 MARC으로 하거나 메타데이터로 작성하는 두 가지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는 응답이다. MARC으로 정리하는 도서관이 많고 등록번호는 부여하는 도서관과 그렇지 않는 도서관이 있다.

24) “주제서비스 시대의 장서관발,” 수서업무 게시판 글 번호 481.

25) 각 업무분야별로 게시판에 자주 올라오는 메시지와 댓글을 중심으로 사례집을 만들어, KERIS 주관으로 2007년 11월에 열리는 2007년 대학도서관 실무자 세미나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26) “e-book정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정리업무 게시판 글 번호 485.

“연속간행물 딸림자료 관리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²⁷⁾ ‘단행본 딸림자료를 등록하는 것처럼 연속간행물 체크인시에 별도로 딸림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질문자의 도서관 프로그램에서는 그 기능의 지원이 되지 않아 비도서로 등록을 한다는 것이다. 여러 댓글에서는 체크인 정보에서 딸림자료로 체크인만 하고 비도서자료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이런 자료가 많다면 선별하여 비도서자료로 다시 등록하여 이용시키고 있다는 응답도 있다.

“도서 목록시 고서의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²⁸⁾ 질문자의 도서관은 ‘발행시기는 상관없이 책의 발행형태가 동장본으로 된 것은 모두 고서로 정리하고 있는데 고서라고 하면 책의 형태보다는 시기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질의자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는 1910년 이전에 간행된 동장본을 고서라 하고 고서MARC으로 정리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대답은 고서 수집을 많이 하고 있는 도서관 웹사이트를 소개하고 있다. 안동대 도서관, 영남대 도서관, 서울대 도서관 등을 안내하고 있다.

“도서정보에서 목차와 초록 업로드에 대해서 궁금점”²⁹⁾ ‘인터넷 서점에 있는 도서정보에서 목차와 초록 등을 복사해서 올리면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지, 또한 목차와 초록 등의 정보만을 제공하는 유료서비스 기관이 있는지’ 묻고 있다. 신규자료부터 KERIS종합목록에 있는 목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대답이 있다. 도서관에서 개별 자료에 대하여 목차를 입력할 수도 있지만 많은 자료를 처리하는 도서관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악보입력은 어떻게 하세요”³⁰⁾ 질문자 도서관의 시스템에는 ‘악보를 비도서자료로 입력하려면 자료유형을 녹음자료로 선택하여 입력하게 된다’는 질문이다. 악보가 녹음자료가 아닌데도 녹음자료로 디스플레이 된다는 것이다. 응답으로는 리더/06(레코드 유형)을 기준으로 이용자 검색시 자료형태 아이콘이 표시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수서업무 사례집을 위한 모음에서는 도서관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모으고 있다. 파일과 CD로 저장하고 출력하지 않는다는 대학이 많다. 이 경우는 CD의 수명, 파일 백업손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학위논문 지도교수명은 몇 Tag에 입력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사례도 모으고 있다. 일반 주기사항 Tag500 또는 700에 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다. 악보입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사례집에 포함시키고 있다.

200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에서 정리업무 분야의 토의주제로 음악자료의 정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 내용을 요약한다. 낱장자료나 책자형태 모두 비도서로 정리한다는 것이다. e-book정리는 업체의 메타정보를 이용하며, 출판, 유통업체의 웹서지정보는 국립중앙도서관의 eCip를 이용한다는 설명이다.

27) “연속간행물 딸림자료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정리업무 게시판 글 번호 479.

28) “도서 목록시 고서의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정리업무 게시판 글 번호 473.

29) “도서정보 목차와 초록 업로드에 대해서 궁금점,” 정리업무 게시판 글 번호 472.

30) “악보 입력은 어떻게 하세요,” 정리업무 게시판 글 번호 448.

3. 참고봉사업무

참고봉사업무는 도서관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게시판을 통한 질의도 여러 유형으로 나타날 것이라 예상된다. 참고봉사업무를 위한 질의를 분석해 본 결과에서는 우선 다양성은 발견할 수 없다. 물론 질의 메시지가 많지 않다고 서비스가 다양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많은 유형의 서비스가 이미 정착되어 있어서 질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사책인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³¹⁾ 질문자의 도서관에서는 작년까지 EBSCO에서 TOC를 구입해서 업로딩하고 있었는데 에러율이 너무 많아서 고생했다고 피력하고 있다. 응답으로 제시된 해결책을 본다. 한 댓글에서는 NDSL, RISS4U 등 다른 사이트를 잘 활용하면서 창의적인 정보활용 능력을 발휘해 보라는 권고를 하고 있다. 최근 큰 출판사들은 RSS로 신간 목차정보를 배포하고 있다. 영국에서 이런 RSS 목차정보를 수집해서 색인화해 사용할 수 있는 자동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도 댓글로 올라와 있다.

“도서 요약본 서비스”³²⁾ 도서 요약본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학이 있는지 알고 싶다는 질문이다. 기존의 초록 혹은 서평, 리뷰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도 묻고 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는 각자가 겪은 다양한 경험을 말하고 있다. 서평보다는 내용을 10장 내외로 요약하는 수준이라는 응답이 있다. 한 대학에서는 2007년부터 2개월간 시범 서비스를 사용했고 서비스를 이용하였던 학생이나 교직원의 호응도가 높아서 5월부터 정식으로 도입하여 운영중이라고 한다. 또 한 응답에서는 서비스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수동적으로 대행사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포위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도서관이 수동적으로 자료를 모아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서비스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댓글도 있다. 또 다른 한 응답에서는 이상적인 콘텐츠를 자체 생산하기에는 인력도 인력이지만 콘텐츠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역량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원론적으로는 주제사서가 쟁점이 된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질문자는 여러 댓글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가격에 비하여 메리트가 없고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별도 사이트에서 검색해야 하므로 불편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직원을 대상으로 이용교육 하신 분 계신지요”³³⁾ 방학 직무교육의 하나로 “도서관 자료 활용법”이라는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을 위주로 하면 좋을지, 교육을 재미있게 하는 방법 등의 의견을 부탁한다는 메시지이다. 댓글이 10개나 올라와 있다. 한 사서는 “학습조직 발표”라는

31) “기사책인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참고업무 게시판 글 번호 703.

32) “도서 요약본 서비스,” 참고업무 게시판 글 번호 699.

33) “직원을 대상으로 이용교육 하신 분 계신지요,” 참고업무 게시판 글 번호 689.

제목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강의하였다는 보고이다. 직원 중에는 대학원 논문 준비하는 사람에게 유익하다는 것이다.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한다면 그 사람들의 요구에 맞는 질문을 만들어서 그 질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진행하면 좋을 듯하다는 의견의 제시도 있다. 아이들 교육 및 재테크 관련 정보가 흥미로울 것 같다는 조언도 있다. 한 도서관에서는 DBPIA와 KISS를 처음 도입했을 때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저널을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 교육했던 적이 있다는 경험도 올려두고 있다. 신청자 접수를 받을 때 교육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면 좋겠는지 적도록 하여 수요조사를 하면 좋다는 조언도 있다. 교육부, 대학교육협의회, 학술진흥재단 등의 행정업무를 직원교육에 포함시키는 것도 좋다는 의견도 있다.

많은 사서들이 직원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상당한 대학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내용에서도 대상자들의 관심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그것에 맞추어 교육을 하거나 도서관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업무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사서들이 창의적인 사고로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하게 된 것을 크게 환영을 하고 있다.

“주제자료실 활성화 방안”³⁴⁾ 어떤 주제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를 문의하고 있다. 응답으로는 한양대가 주제자료실을 운영하며 레퍼런스 자료도 단행본과 같이 두고, 대출도 같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안내를 하고 있다. 충남대도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세 부분으로 주제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서, 연속간행물, 학위논문은 별도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댓글을 올리고 있다.

“연속간행물을 비롯한 대출 불가 자료의 이용에 관하여”³⁵⁾ ‘도서관의 기본 목적은 자료보존이 아니라 이용자의 최대 이용을 통한 만족도 향상이 목적이 아니냐. 그렇다면 연속간행물이나 기타 대출 불가 자료들을 도서관이란 틀에 묶어서 이용을 제한한다면 그 이용을 최대화할 수 없지 않느냐고 질문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댓글에서는 여러 사례가 제시되고 있다. 교직원에 한해서 과월호는 대출한다는 대학이 있다. 최근호는 찾는 사람이 많으므로 불가하고, 학위논문은 전자파일로 보존할 때부터 대출이 가능한 대학도 있다. 최신호는 밤샘대출, 주말대출, 1일대출, 예약대출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조언도 있다. 논문이나 정간물의 대출을 시행하고 싶지만 제도가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지적의 댓글도 있다.

“도서관 이용교육의 새로운 방향”³⁶⁾에는 주간신문인 “한국대학신문”에 실린 내용을 옮겨두고 있다. 숭실대 도서관의 ‘사이버 정보활용 교육 프로그램’과 숙명여대 도서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34) “주제자료실 활성화 방안,” 참고업무 게시판 글 번호 680.

35) “연속간행물을 비롯한 대출 불가 자료의 이용에 대하여,” 참고업무 게시판 글 번호 590.

36) “도서관 이용교육의 새로운 방향,” 참고업무 게시판 글 번호 450.

참고봉사업무 사례집을 위한 정보의 모음에는 세 가지 내용을 올려두고 있다. 첫째, 지역주민에 대한 도서관 개방이다. 대상으로 지역주민, 휴학생, 졸업생의 포함여부이며, 서비스에는 대출, 열람실 자료실 완전개방의 여부, 대출증은 예치금 없이 바코드 부여 등이 고려된다는 것이다. 개방의 장점으로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대출서비스가 반응이 좋고 단점으로 중고생들의 소란문제와 재학생들의 불만을 말하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정보공유라는 점에 대한 이해와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라고 지적하고 있다. 둘째, 추천도서(권장도서)의 선정 방법에 대한 사례이다. 한국도서관협회에서 간행한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을 참고하여 구입하는 경우, 해당 대학신문에 매주 2권씩 서평을 소개하는 경우, 독서마일리지제 운영위원회에서 과학 예술, 인문사회, 경제경영, 문학 등의 분야에서 100권의 추천도서를 선정하는 경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매월 10권 발표하여 교수, 직원의 추천을 거치는 경우, 도서관 사서가 선정하고 책자를 제작하는 경우, 주요 일간지에 있는 서평을 참고하여 선정하는 도서관 등 다양한 선정 사례가 제시되고 있다. 셋째, 직원대상 이용자교육의 내용과 사례를 모으고 있다. 여러 질의에서 다루고 있는 메시지와 댓글을 옮겨두고 있다.

4. 상호대차 업무

개별 도서관에서의 상호대차 업무의 활성화는 정보조사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들의 개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수록된 자료를 찾고서는 그 원문입수를 위하여 도서관에 요청하는 것이다. 정보검색에 필요한 도구들도 과거에는 개별 도서관에서 수집된 자료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인터넷의 활용으로 정보검색에 필요한 웹 데이터베이스들이 많아지고 또한 그 이용방법도 점차 쉬워지고 있다.

대학도서관에서의 상호대차 업무는 무엇이 문제이며,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어떠한지를 사서 커뮤니티의 논의에서 찾아본다. 상호대차 담당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의 해결을 위하여 제시되는 메시지이므로 아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대출 자료의 범위는 어디까지가 좋을 까요”³⁷⁾ ‘다른 대학도서관으로 대출해주는 자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내용을 공개해 주었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참고도서, 연속간행물, 귀중본, 희귀도서, 고서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다른 도서관에서 대출받은 자료를 이용자에게 전달해주면서 책에 특별한 라벨을 붙인다는지요.’ 이에 대한 댓글은 많지 않다. 귀중본, 희귀도서 등을 구분하고 있지 않은 대학도서관도 있고, 대출불가 도서로 지정된 것은 거의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는 응답을 하는 정도이다. 다른 도서관에서 대출받은 도서의 제공시에 주의사항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 한 도서관은 상호대차를 통해 받은 도서를 대출할 때 도서에 안내문을 함께 보내어, 이용

37) “대출 자료의 범위는 어디까지가 좋을 까요.” 상호대차업무 게시판 글 번호 843.

에 특별히 주의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는 사례를 적고 있다.

“상호대차 비용 부담에 관하여”³⁸⁾ 교수님들의 상호대차 서비스 비용을 도서관에서 지원하는 대학이 있는지 문의하고 있다. 또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지원하고 있는지를 함께 질문하고 있다. 이 질의에 응답한 대학이 많다. 많은 대학도서관에서 교수와 직원에게는 상호대차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있다는 대답이다. 한 대학도서관에서는 학부와 대학원생에게도 무료지원을 한다고 알리고 있다. 이 사항은 상호대차 담당자에게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많은 사서들이 댓글로써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KERIS에서 전국 대학도서관에서의 상호대차 비용부담 현황을 조사하여 ‘사서커뮤니티’ 자료실에 그 내용을 올려두고 있다. 사서들에게 주어지는 공통적인 과제가 이렇게 협력기관의 노력으로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해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서커뮤니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개별 도서관의 과제들이 ‘사서커뮤니티’를 통하여 제기되고 해결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할 것이다.

“상호대차 담당자의 부가업무는 어디까지인가”³⁹⁾ 상호대차 업무 이외에 부가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으면 게시판에 올려달라는 부탁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서들이 관심을 나타내기는 하였지만 직접 응답을 한 사람은 많지 않다. 응답한 경우는 상호대차, 이용자교육, 전자정보실 관리, 웹디비 관리를 함께하거나, 상호대차, 이용자교육, 참고질의 응답, 또는 상호대차, 외국저널, 전자저널, 웹디비, 연속간행물실 업무 등을 동시에 맡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항은 개별도서관의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가능할 것이라 여겨진다. 이용자가 많고 관련 자료가 다양할 때는 이러한 업무들을 한 사람이 동시에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상호대차 이용률을 늘릴 수 있는 방법”⁴⁰⁾ 이 메시지는 게시판에 올려진지가 조금 오래된 질문이다. 한 댓글에서 제시된 방안을 보면 첫째,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레포트 부과 때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게 하는 방법 둘째, 각 대학도서관에서 서비스하는 국내 원문제공 사이트 이용안내 셋째, 학과별 맞춤 서비스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호대차 활성화 방안”⁴¹⁾이라는 제목으로 상호대차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올려진 메시지가 있다. 이 댓글에는 요청한 자료의 검색도구에 대한 설명과 담당자의 의지 및 업무처리 능력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먼저 원문복사 신청이 들어오면 저널은 학과별로 정리해 두고, 전자저널이나 웹디비로 구독하는 저널은 학과에 통보한다는 것이다. 원문복사 신청을 위하여 신청자가 전화로 또는 직접 방문시에 이용자교육을 하면 좋은 효과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다. 상호대차 업무를 하면서 얻어진 노하우를 전해주고 있다.

“단행본 전권복사에 대한 고민”⁴²⁾에 대한 질의가 있다. 응답으로는 구입 절판이 된 자료일 경우

38) “상호대차 비용부담에 관하여,” 상호대차업무 게시판 글 번호 833.

39) “상호대차 담당자의 부가업무는 어디까지인가,” 상호대차업무 글 번호 821.

40) “상호대차 이용률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상호대차업무 게시판 글 번호 432.

41) “상호대차 활성화 방안,” 상호대차업무 게시판 글 번호 49.

는 두 번에 걸쳐 복사신청을 한다. 양서인 경우는 목차만 먼저 복사 제공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2007년 5월에 열린 전국대학도서관대회 상호대차 실무자 토의에서는 비협력기관과의 상호대차 사례, 상호대차 담당자의 부가적인 업무, 상호대차 무료제공 서비스, 국내 기관간 상호대차 서비스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상호대차 사례집 제작에 포함될 사항으로는 상호대차 비용부담 사례, 일반 이용자 서비스 사례, 휴학/수료/졸업생에 대한 상호대차 인증관련 사례 등이 논의되고 있다.

5. 전산업무

전산업무 게시판에는 현재 대학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산업무에 대한 질문은 거의 없고 소식, 기사, 보고서, 자료, 정보, 동향, 프로그램 등을 안내 또는 소개하는 형식의 메시지가 올라와 있다.

200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에서 토의된 내용을 보면 전산업무 게시판에 올려지는 메시지들이 현재 대학도서관들이 전산업무를 수행하면서 생기는 문제와는 관련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토의내용은 도서관과 전산소 통합의 사례, 디지털DB 설계, 구축시 고려할 점, 대학도서관에서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 도서관 모바일서비스, 도서관 홈페이지 고객 서비스, 커뮤니티를 통한 업무교육, 디지털도서관 품질평가 등이다.

전산업무 사례집에 포함시킬 내용으로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블로그 활용 사례와 인터넷 정보원 도서관 활용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전자에는 국내 대학도서관과 외국의 사례 모음이 댓글로 올려지고 있으며, 후자에 대해서는 5개 대학도서관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6. '사서커뮤니티'의 정체성

자유게시판과 익명게시판에 올려진 메시지를 분석한다. 이 두 게시판에는 앞의 특정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는 사안이면서 동료 사서들과 논의를 필요로 하는 관심사항들에 대한 내용이 올려져 있다. 여기에서 다루는 메시지들이 모두 '사서커뮤니티'의 정체성에 관련된 내용만은 아니다. 그러나 넓은 시각에서 본다면 사서의 정체성 또는 사서커뮤니티의 정체성과 일정 정도의 관련성을 지닌 메시지라고 판단된다. 각 메시지 중에서 유사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들을 묶어서 살펴본다.

"사서커뮤니티의 정체성"⁴³⁾에 관련된 메시지들이 다섯 가지나 올려져 있다. 먼저 여러 게시판

42) "단행본 전권 복사에 대한 고민," 상호대차업무 글 번호 149.

43) "사서커뮤니티의 정체성," 익명 게시판 글 번호 141.

을 만들어 도서관업무 영역별로 메시지를 올리도록 하는 것보다 중후합과 형식을 갖춘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결실을 맺는 커뮤니티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여러 댓글에서는 형식보다는 관심을 가져야 하며, 형식은 틀에 박힌 생각이고 현재 소수의 제한적인 회원들만이 참여하는데 중후합과 형식을 주장하면 더 참여가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을 하고 있다. 또 한 사서는 우선은 커뮤니티의 질의 문제보다 양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나누고 싶은 생각, 궁금증, 함께하고 싶은 내용들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댓글을 올릴 당시의 회원 2057명 중에서 2%라도 인식하면 좋겠다는 바램을 나타내고 있다.

“사서커뮤니티는 왜 만들었을까”⁴⁴⁾라고 반문하면서 정리 커뮤니티 운영위원 선출과정에 투표자 수가 적음을 보고 커뮤니티를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댓글 2개는 파이팅을 하자고 설득하고 있다.

“사서커뮤니티 리노베이션 필요”⁴⁵⁾라는 제안을 하면서 현재 6개의 커뮤니티를 통합하고 운영방식을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다. 댓글에서는 문제가 시스템에 있다기 보다는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커뮤니티와 KERIS의 이원체제가 장애가 된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KERIS에 기대하거나 의지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커뮤니티를 운영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댓글에서는 한 사람의 운영위원으로 커뮤니티를 관리하지는 제안도 있다.

“국내 도서관계 동향에 현장 사서들의 무관심 극에 달해”⁴⁶⁾라는 메시지를 올리면서 각 업무영역별 운영위원들의 더 많은 노력을 주문하고 회원들도 관심과 표현을 주저하지 말자고 부탁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서커뮤니티의 활성화에 관련된 메시지들을 살펴보았다. 다음의 메시지도 크게 보아 '사서커뮤니티'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라 할 수 있어 여기서 분석해 본다. “내가 도서관이 아닌 타 부서로 진출된다면”⁴⁷⁾이라는 내용의 긴 글이다. '타 부서로 진출되는 사서들이 있다. 사서들이 능력이 있어서 뽑아가는 것을 기뻐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서들이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냥 머물러야 하나요, 아니면 잠시 타 부서에 가서 도서관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 전체 조직을 보면서 도서관의 발전방향을 파악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 이에 대한 댓글이 12개 달려있다. 댓글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다른 부서로 갈 수 있으면 가야 한다는 주장과 전문성을 가지려면 도서관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또한 현재 대학도서관 사서가 처한 현실을 토로하고 있다. 몇 가지 댓글의 주요 부분을 옮겨 본다. 승진없이 사서로 남느냐, 지위를 올리느냐, 사서로서 할 일을 해왔으면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 승진 안 해도 되니 도서관에 있는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학교조직은 비슷하니(타 부서로)간다. 경쟁력 있는 사서가 스카

44) “사서커뮤니티는 왜 만들었을까,” 익명 게시판 글 번호 72.

45) “사서커뮤니티 리노베이션 필요,” 익명 게시판 글 번호 60.

46) “국내 도서관계 동향에 현장 사서들의 무관심 극에 달해,” 익명 게시판 글 번호 55.

47) “내가 도서관이 아닌 타 부서로 진출된다면,” 익명 게시판 글 번호 132.

웃 된다. 후배에게 길을 열어준다. 울타리 밖의 현실을 본다. 대학도서관의 사서로서 자질이 미치지 못하고 타 부서와 달리 정량적으로 평가되지 않아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올라와 있다.

“정리업무는 향후 10년후에 살아 남을까요”⁴⁸⁾ 비용과 신속함을 중시하는 시대에서 정리업무가 도서관의 중요한 업무로 남을 수 있을지를 절의하고 있다. 댓글에서 양복점과 기성복을 비유하면서 텔레비전에서 방영한 “양복점 수난기”를 적고는 정리업무의 방향을 예견하고 있다.

“몇년째 신규사서 채용이 없으신가요”⁴⁹⁾ ‘과거에 비해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채용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많은 대학도서관의 경우 제일 막내 사서의 근무경력이 5년을 넘기 일쑤’라고 설명을 달고 있다. 여러 댓글에서 10년, 12년, 15년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신규로 채용을 하지 않았다면 업무를 어떻게 하시나요’라고 하는 반문도 있다. 아웃소싱을 생각하는지도 말하고 있다. 사립대 도서관협의회나 국립대도서관협의회 등의 조직에서 이런 현상에 대하여 조사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된다는 주장의 댓글도 있다. 입사한지 6년 되었는데 위로 팀장이므로 중간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는 호소도 있다.

“실무자 없는 실무자 세미나”⁵⁰⁾ KERIS의 대학도서관 업무영역별 세미나에서 제목만 ‘대학도서관 실무자 세미나’일뿐 실무자의 발표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⁵¹⁾ 댓글의 내용들은 교수의 발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몇 가지를 옮겨 본다. 강사진 구성에 문제가 있다. 현장이 중심이 되는 세미나를 원하고 있다. 교수님의 강의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교수님들이 실무와는 많이 떨어진 내용들을 강의한다는 것이다. 교수님은 교수님들의 세미나에서 발표하면 된다고 댓글에서 주장하고 있다.

“현장사서의 발표- 사서들의 연구가 적은 탓일까요”⁵²⁾라는 메시지를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한 댓글을 요약한다. 행사 진행 측의 문제도 있다. 현직 사서의 연구물 발굴이 필요하다. 이번 세미나에 가야할 이유를 찾을 수 없어 마음을 접었다. 우리나라 학회지들이 내용보다 형식을 따진다. 원저 논문, 리뷰, 사례연구 등이 수록될 수 있다. 특히 현장 중심의 글은 논문의 형식보다 유연하게 쓰나, 우리나라는 일률적 형식을 요구하니 이슈나 사례연구들이 빛을 발하지 못한다. 물론 현장 중심의 글을 수록하는 매체로 사대도협회지, 국립대학도서관보, 도서관문화, 도서관계 등이 있기는 하다. 사실 학회지를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원저논문과 현장의 사례보고가 함께 수록되면 현장과 강단이 문제 해결에 공동 노력한다는 의미도 된다.

48) “정리업무는 향후 10년후에 살아 남을까요.” 익명 게시판 글 번호 70.

49) “몇년째 신규사서 채용이 없으신가요.” 자유 게시판 글 번호 5310.

50) “실무자 없는 실무자 세미나.” 익명 게시판 글 번호 93.

51) 2007년 11월에 개최되는 KERIS의 대학도서관 실무자 세미나에서는 현장 사서의 발표와 토론이 있다. ‘2007년 대학도서관 실무자 세미나’ 일정표를 보면 각 업무영역별로 현장 사서의 주제발표가 있다.

52) “현장사서의 발표-사서들의 연구가 적은 탓일까요.” 익명 게시판 글 번호 92.

“문헌정보학과가 있는 대학도서관과 없는 대학도서관의 차이”⁵³⁾ 댓글을 요약해 본다. 학과가 있는 대학도서관에는 본교 졸업생의 채용이 많다. 선후배 간에 근무라 근무성과가 좋아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다른 댓글에서는 부서장이 잘 조절하면 된다. 본교 출신자들이 잘 처신해야 한다. 구성원이 다양한 곳을 원하고 있다는 응답도 있다.

“세칭 일류대학 사서들은 왜 참여가 저조한가요”⁵⁴⁾ 여러 댓글을 간추려 본다. 대학 내부에서 웬만한 것은 해결할 수 있으므로, 조직 자체가 커서 내부 일도 해결하기가 벅차서, 중소대학 사서들과 어울리기 싫어서, 외부활동을 조직에서 안 좋게 보아서 등이 아닐까고 설명하고 있다. 다른 한 댓글은 여러 측면을 고찰하면서 적고 있다. 사서커뮤니티는 활동자가 소수이다. 상호대차는 큰 대학은 하지 않고 있다. 기관보다는 개인의 성향 때문일 것이다. 큰 대학 사서는 정보입수가 상대적으로 소규모 대학의 사서보다 쉽다.

“사서 선배님의 도움을 청합니다”⁵⁵⁾ ‘도서관의 직무기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단위업무별 소요시간, 산출내역이 필요하다’는 질의이다. 자료분류 1건당 소요시간, MARC작성 1건당 소요시간, 장비작업 등에 대하여 묻고 있다. 댓글에서는 응답자가 소속된 도서관의 경험을 적고 있다. 분류작업 1건당 20분, MARC 10분, 장비 30분, 참고봉사 1건당 40분, 1일 업무량 연간 정리권수나 종수 $= (365일 - 휴무일) = 1일 업무량$

“도서관계 갑론을박이 될 만한 뜨거운 감자가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⁵⁶⁾라는 주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댓글들이 올려지고 있다. 열람실(자유열람실), 지역주민에 개방, 정리업무 인원의 이웃소싱 및 주제전문사서로 전환, 학위논문 원전은 완전 오픈, 교내 오픈,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은 사서가 아니면 평생교육사가, 학교도서관 인력배치 논란(사서교사나 사서냐), 도서관 관장은 사서출신, 사서교육원, 사서자격증의 자격시험, 연체료 징수, 도서관에서의 음악방송 등이다.

IV. 사서들이 보는 대학도서관의 과제

‘사서커뮤니티’의 운영은 운영위원장과 각 업무영역별 운영위원이 중심이 되고 회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게시판에 올리고 이 메시지를 본 다른 회원이 댓글의 형식을 빌려 자신의 견해를 올리는 방식이다. ‘사서커뮤니티’의 운영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KERIS가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게시판을 통하여 질의하고 응답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안은 KERIS가 해결하는 사례도 있다. 예를들면 상호대차 비용부담을 대학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KERIS가 조사하여 그 결과

53) “문헌정보학과가 있는 대학도서관과 없는 대학도서관의 차이,” 익명 게시판 글 번호 117.

54) “세칭 일류대학 사서들은 왜 참여가 저조한가요,” 익명 게시판 글 번호 101.

55) “사서 선배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익명 게시판 글 번호 124.

56) “도서관계 갑론을박이 될 만한 뜨거운 감자가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자유 게시판 글 번호 5267.

를 공개자료실에 올려두고 있는 경우이다.

주로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목적으로 해당 게시판에 질문의 내용을 올리면, 그 글에 관심을 가진 다른 사서가 자신의 경험과 그가 소속된 도서관의 관행을 적는 것이다. 어떤 글에는 많은 사서들이 읽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생각을 나타내지는 않고, 또 다른 메시지에는 조회수도 많고 댓글도 여러 개가 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조회수가 많은 메시지는 우선 많은 사서들에게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하는 내용일 것이다. 게시판에 올라온 어떤 질의에 대하여 여러 사서들의 댓글이 달려지면서 질의에 대한 해답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수도 자주 있다. 중요한 일은 누가 먼저 여러 사서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메시지를 게시판에 올리느냐 이다. 각 업무부문별 운영위원들이 자주 게시판에 많은 회원들이 메시지를 올려주기를 바란다는 부탁의 글을 볼 수가 있다.

‘사서커뮤니티’에 질의하는 내용 중에는 이미 해당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댓글은 자연스럽게 질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추가시켜 올리는 것이다. ‘사서커뮤니티’의 특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공간에서는 문제의 해결도 일어나지만 업무 중에 생기는 답답함을 털어버리는 공간으로서도 작용하는 것이다.

수서업무에서는 정보매체의 생산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도서관이 수집하는 방식도 변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질의하고 있는 내용도 대부분 디지털 자료에 관련된 사항이다. e-book이나 전자저널의 수집방식에 대한 것들이 많다. 수집업무에서 언제나 당면하는 문제로, 대행사를 통하여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질의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에서 자주 일어나는 희망도서 구입에 관한 질의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얼마나 신속하게 자료를 제공하는지에 많은 사서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디지털 장서개발이라는 큰 주제를 제시하고 여기에 대한 여러 도서관의 방침과 개별 사서들의 견해를 밝혀보는 것은 토론의 주제로 적절할 것이라 여겨진다. 인쇄매체 중심으로 장서구성을 할 때와 도서관이 게이트웨이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여야 되는 현재는 수서업무 방식에 많은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여러 질의와 응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장서개발 문제가 조심씩 언급은 되고 있지만 크게 논의는 되고 있지 못하다. 전자저널 구독을 위한 여러 방식도 개별 도서관에서 풀어야 할 문제도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가장 적합한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⁵⁷⁾

정리업무에서는 e-book과 연속간행물 딸림자료의 정리, 도서정보에서 목차와 초록정보의 입수 등 디지털 매체와 관련된 자료정리 방식에 대한 질의가 다수이다. 정리방식은 도서관에 따라 다른 방식을 채택하기 보다는 오히려 도서관간에 공통적인 요소를 더 많이 가지는 성격의 업무이다. 따

57) 다음의 논문에서는 디지털 장서개발의 방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윤희윤, “디지털 장서개발의 방법과 전략,”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2호(2007. 6), pp.79-99. 이 논문에서도 논의하고 있지만, 특히 전자저널의 발행현황과 구독방식에 관한 연구논문은 문헌정보학분야 여러 학회지에 많이 수록되어 있다.

라서 도서관마다 시행하는 독특한 방법에 대한 문의는 거의 없다.

연구논문에 자주 논의되고 있는 더블린 코어나 FRBR⁵⁸⁾에 관련된 질의는 없다. 이러한 주제는 아직 도서관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실무자들 사이에는 논의가 없는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봉사업무 게시판의 메시지 중에서 많은 사서들이 관심을 보인 내용도 디지털 매체에 대한 봉사방식과 관련된 것이다. 신간 목차정보 서비스, 도서 요약본 서비스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직원 대상 이용교육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어떤 내용을 교육하면 좋은지에 대한 댓글이 가장 많다. 개별 도서관의 경험이 많이 소개되고, 개인의 견해도 포함시켜 알려주고 있다. 이용교육을 통하여 대학 내에서 대학도서관의 필요성과 사서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찾아오는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에서 고객을 초청하여 잔치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잔치상에 무엇을 올려놓아야 고객들이 맛나다고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는 도서관이 서비스하기 시작한 데이터베이스의 활용법을 소개, 교육대상자들의 관심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그것을 토대로 하는 교육 등 다양한 내용들이 댓글로 올려져 있다. 사서들이 가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담당자만이 아니라 도서관마다 팀을 만들고 교육내용과 방법을 논의할 필요가 충분히 있는 과제이다. 디지털정보 시대에서는 더욱이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을 대학도서관의 주요 기능으로 포함시켜 제도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여겨진다. 디지털정보에 대한 장서개발을 위하여 소장과 접근을 논의하면서도 개별 도서관들이 자료의 접근을 위한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상호대차업무는 주로 비용부담에 관련된 논의가 많다. 담당자로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대학원생에게 비용부담을 시키는지 문의하는 사례가 많다. 대학도서관은 상호대차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마련하여 비소장 자료에 대한 정보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소수의 대학에서는 상호대차 활성화 방안을 문의하고 있다. 여기에 대하여 친절하고 자세한 응답도 있다.

전산업무는 일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라, 대학도서관에서 새로운 정보 기술을 사용하여 정보서비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블로그를 사용하여 정보서비스를 시행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한 웹자원의 이용이 그러한 논의들이다.⁵⁹⁾ 댓글에서는 현재 그러한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는 도서관들의 웹페이지를 소개하고 있다.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메시지들은 우선 다수의 사서들이 ‘사서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58) 더블린 코어에 대하여 학술연구지를 통해서가 아니고 도서관분야의 일반적인 매체에서 그 내용의 소개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FRBR의 소개는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의 웹진에서 소개되고, 최근호 ‘도서관계’에서 소개되고 있다. 노지현, “FRBR 모델의 개발과정과 최근 동향,” 도서관계, 제17권, 제9호(2007. 11), pp.15-19.

59) 블로그를 활용한 정보 서비스에 관한 논문이 KERIS의 대학도서관 실무자 세미나에서 발표되었다. 권태훈, “블로그를 활용한 참고봉사 서비스,” 2007년 KERIS 대학도서관 실무자 세미나, 2007.11.26. 서울교육문화회관.

방안에 대한 논의가 많다. 한 댓글은 사서들이 도서관계의 동향에 무관심하다고 피력하면서 ‘사서 커뮤니티’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학도서관에서 신규사서 채용이 최근에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도서관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제도권에 건의하기를 바라고 있다. 사서를 위한 실무자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가 실무자가 아닌 경우가 허다하다는 지적이 있다. 교수들의 발표가 문제라기보다는 실무자를 위한 세미나에는 실무자가 발표하고 토론하는 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헌정보학을 현장과 강단이 함께 풀어가는 학문이라고 하면서 문헌정보학 학회지에는 현장사서의 글이 수록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장 사서들이 발표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하게 있지만 학회지에 연구자와 실무자의 글이 함께 수록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것이 곧 도서관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다. 학계가 귀담아 들어야 할 과제인 것 같다.

V. 결 론

‘사서커뮤니티’의 공개 자료실에 올라온 메시지를 보면 대학도서관의 여러 업무부문에 대하여 많은 외국의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사서커뮤니티’만 잘 이용해도 손쉽게 전 세계의 대학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보서비스 사례를 알 수 있을 정도이다. 대학도서관에서의 관행을 알기위하여 여러 웹사이트를 찾으면서 시간을 소비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사서커뮤니티’가 잘 운영되면 국가적으로도 큰 이익이 되는 것이다. 개별 도서관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의 디지털정보까지도 가져다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사서커뮤니티’를 단순히 사서들의 의견교환처 정도로만 여길 것이 아니다. 커뮤니티 운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KERIS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대학도서관들이 당면하는 공통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의 도서관정책이 정교하게 마련되고 시행되면 개별도서관에서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각 부문별 업무는 그것에 잘 맞추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하고난 다음에 도서관별 특성화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이해하고 있는 업무내용과 관심사항을 알아본다.

매일 수행하는 수서업무의 결과로 장서구성이 된다. 장서구성을 위한 도서관의 노력은 수서업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장서개발을 위한 개별도서관의 노력이 ‘사서커뮤니티’의 논의에서는 거의 없다. 물론 ‘사서커뮤니티’에 올려지는 메시지가 도서관 업무과정에서 제기되는 아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와 응답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상적인 일이 아니면 의제로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이해된다. 누군가 먼저 공통적인 관심사항을 메시

지로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잡지의 구독방식은 국가 차원에서 컨소시움을 만들고 그것에 개별 도서관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아직 정교하게 만들어진 전자잡지 구독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이다. 도서관정책부서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대학도서관에서의 참고봉사업무는 전통적인 참고도구에 의존하기 보다는 웹자원을 이용하는 수가 많다. 참고봉사업무와 전산업무간에 어떤 구분을 하기가 어렵게 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서커뮤니티’의 참고봉사업무 게시판에 올려진 메시지에는 웹자원을 활용한 정보서비스에 관련된 질의는 많지 않다. 정보 이용자 교육에 대하여 사서들의 높은 관심을 볼 수 있다. 체계적인 이용자 교육의 시행을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서들이 참여하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도서관과 사서가 함께 정체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사서커뮤니티’의 전산업무 게시판은 별개의 게시판을 설정하는 것보다 각 업무 게시판에 전산관련 사항을 함께 다룬다면 질의 메시지의 처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가령 디지털 장서개발에는 어떤 매체가 포함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는 수서업무, 정리업무, 참고봉사업무, 전산업무까지 관련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제를 전산업무 게시판에 올리면서 토의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 게시판과 익명 게시판을 통하여 제시되고 있는 사서커뮤니티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 신규 사서의 채용 그리고 현장 사서의 세미나에서의 발표에 제외 등의 문제는 도서관정책 당국자와 개별 대학도서관 사서진과 문헌정보학계 연구자들이 함께 깊이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 과제이다.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정책당국자와 강단과 현장사서들에 의하여 계획되고 운영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